



“네 마음이 부처임을 알라”
14 선지식-지유 스님

“마음의 눈뜨는게 최상의 공덕”
13 함께가요 설법전-수불 스님

“베스트 병은 경계”
9 도반의 향기-박은주 사장

“재가·신행교육에 매진할 것”
6 동산반야회 2대 이사장-안동일 변호사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 봉행 조계종은 10월 31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2005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품서식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 받은 스님은 도문, 혜정, 지중, 명선, 선진, 무진장, 월서, 혜승, 정무, 현해, 고우, 법홍 스님 12 명이다. 명종, 삼귀의, 고불문, 서원, 법계종 수어, 종정 법어, 가사 수어, 발원문, 사홍서 원 수어로 봉행된 이날 품서식에서 법전 종정스님은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가지 않고는 공경(空功)이전의 면목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법어를 내렸다. 품서식에서 대종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종정스님으로부터 법계종과 가사를,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불자를 받았다.

“종교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대구경북대회 봉행위원장 허은 스님 기자회견

“종교차별금지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성시화 운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11월 1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 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앞두고 공동봉행위원장 허은 스님(동화사 주지)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11월 1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10월 29일 기자회견하는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

허은 스님은 10월 29일 대구 보현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과 갈등 해소, 사회 공동체정신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연방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허은 스님은 “이번 대회는 지혜와 자비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불교적 방식으로 여법하고 평화적인 행사로 치를 것”이라며, “각종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공동체 정신 회복운동 실천결의 ▲종교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결의 ▲종교차별 철폐를 위한 불

자 실천행동 지침 발표 ▲종교연방 공직자 및 성시화 운동 참여 공직자에 대한 거부운동 전개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 지부 구성 및 감시센터 개소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에 이어 ▲명종 ▲명고 ▲개회 ▲삼귀의, 예불, 대중정진(신묘장구대다라니, 잠회진언),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경과보고 ▲치사-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봉행사-직지사 주지 성운 스님 ▲대회연설1-종교차별금지법 촉구 ▲대회연설2-사회차별 해소(불행행동지침 제안) ▲대회연설3-성시화 운동 공직자 경고 ▲대통령께 드리는글-초등학생 남녀 2명 ▲결의문 ▲발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성우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소년비만, 불교에 답있다”

포교원·사회복지재단, 인성형 비만치유 프로 개발

고칼로리 음식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비만·성인병이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비만치료를 통한 신개념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이 등장해 관심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과 사회복지재단은 10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성형 비만치유학교 ‘The Less The More’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고 비만치유프로그램 보급에 나섰다.

발표회에서 포교원장 혜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계종 산하 사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해 불교의 가치로 어린이·청소년 비만 등 사회적병리현상 치유하고, 향후 미래 동향을 육성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한 임해영 사회복지재단 연구실장(성균관대 겸임교수)은 “현재 대부분의 비만치료

프로그램은 단순히 살을 빼는데 치중해 정서적·심리적 치유 접근이 부족하다. 우울성향과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만아동들에게는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찰음식을 통한 생활양식 변화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강화, 부모교육 등 부모의 동참과 변

화를 유도한다는데 기존 비만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호 중앙구경간가정지원센터장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프로그램, 범우 스님(동국대 유아교육과 강사)의 다도명상 프로그램, 박현숙 사찰생태연구소팀장의 사찰생태프로그램, 박상해 소장(사찰음식연구소 ‘공양간’)의 사찰음식식단개발 프로그램 등 세부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chavala@buddhapia.com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에 최선”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 지관 총무원장에 다짐

“한나라당과 합의해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상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중당 불자모임인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이 10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최문순 의원은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1차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2차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하고 문화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지관 스님은 “11월 1일 대구 경북 범불교대회를 계기로 종교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2009년 문화재청 예산 삭감과 관련, “불교문화재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불교와 사찰에 도움이 될 것

이란 생각은 잘못이다”며 “문화재 보호는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박선숙 의원, 윤원호 前의원이 참석해 8·27 범불교도대회, 11·1 대구경북대회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한편, 최문순 의원은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감 의원’에 선정됐다.
이상연 기자

社告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 종교연방 근절 호법캠페인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의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연방 및 해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옹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서구개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시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금강경)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와 1,000원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고생의 흥미자 이야기
금강선원 뽕잎차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양생 수제 구구주포 뽕잎차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술 향산화 원력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물질
대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유 전용 **관불수향**
울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대구 정경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미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장등 주문 받습니다(사절명 인예)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만일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경기도 평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